

재영학자 제임스 그레이슨의 한국학 연구 및 교육활동과 그 의의*

권익석**

〈차 례〉

- 서론
- 제임스 그레이슨과 한국
-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활동
- 세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운영과 확장
-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재영학자인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및 교육 성과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평가하였다. 그레이슨 교수는 한국에서의 선교 생활을 통해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이해하고 싶다는 학술적 호기심이 동력이 되어 현재의 자리에 이르게 된 한국학자이다. 그레이슨 교수는 인류학, 역사학, 종교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 들며 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관심과 역량을 갖추고, 한국종교사 및 민속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다른 한국학 연구와 차별되는 시선과 각도를 제공하였다.

특히 그레이슨 교수는 『한국종교학』, 『한국의 신화와 전설』과 같은 개론서의 편찬을 통해 영어권에서 한국학의 저변을 넓히고, 세필드대학교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필드 대학교가 영국의 주요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영국 내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주제어] 제임스 그레이슨, 재영학자, 해외 한국학, 한국종교사, 종교인류학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7S1A6A3 A02079082)이며, 2024년 5월 3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움직이는 한국학(자): 한국에서 서구로, 서구에서 한국으로> 학술회의의 발표문을 발전시킨 연구이다. 본 논문을 쓰는 데 가르침을 주신 토론자 배민재 선생님과 익명의 세 심사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1. 서론

1876년 조선의 개항, 그리고 1880년대 서양 각국과 맺은 조약을 기반으로 조선에 입국한 서양인 선교사들은 한국, 한국인을 탐구, 연구하고 이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며 근대 한국학의 초석을 닦기 시작하였다. 탐험가, 외교관, 사업가 등 조선에 단기간 체류하며 업무를 마무리하면 귀국하던 이들과 달리, 서양 선교사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장기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었고, 활동이 단순히 기독교 전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서구적 가치를 수용하며 ‘문명화’되도록 하는 사명 또한 갖고 있었기에 이를 위해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를 하려는 목적 또한 확고하였다. 이들이 한국인을 관찰하며 획득한 지식은 서양 선교사 사이에서 교환되고 전파되면서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었고, 이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물은 서구적 시각에서 주변부인 한국을 바라보는 당시의 식민지적 시각을 잘 보여주었다.¹⁾ 서양인 선교사들은 본인들이 익힌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등의 학술지와 영문 잡지를 통해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²⁾ 조선의 열등함을 강조하여 문명이란 이름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한 일본 학계,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과 우수성을 강조한 한국인 민족주의 학계 사이에서 서구적, 근대적 지식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서구 한국학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다.

1) 육영수,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 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년대-1890년대」, 『역사민속학』,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115쪽.

2) 이들 영문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4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이유정, 「호머 헐버트의 한국민속연구와 영역 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비교한국학』 29-2, 2021; 이영미, 「1900~1940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와 서양인들의 한국 연구」,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연구」, 『역사민속학』,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1892~1898)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시기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구미권의 한국학에 대해 학술적인 관심이 많아지면서 개항기 이후부터 1940년 일제의 외국인 강제 추방 이전까지 활동하던 서양인 선교사와 이들의 한국학 연구 업적을 조명하는 연구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³⁾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의 시기 활동하던 서양인 한국학자에 비해, 해방 이후 유럽, 미국 등 서구권에서 한국학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학문적 관심이 소홀한 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 한국학 교육기관이 양적인 팽창을 한 다양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해외 한국학자들의 꾸준한 연구와 교육활동인 만큼,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한국학자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한국학의 확산과 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나, 현재 서구권의 한국학 관련 연구는 주로 한국학 연구·교육기관의 현황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편이다.⁴⁾

특히 2차 대전 이후 한국학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영국 내 한국학의 발전 과정, 그리고 재영(在英) 한국학자들의 연구, 교육 분야 성과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해방 이후 냉전 시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이 지대하였고, 학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인 데다, 한국 정부 역시 현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외 국가 가운데 한국학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가이다.⁵⁾ 하지만 영국 역시 개항기부터 영국 성공회를

-
- 3) 최근 연구로는 육영수,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서양선교사들의 조선문화예술 담론만들기」, 『韓國史學史學報』 46, 한국사학사학회, 2022; 「미국-영국 선교사와 외교관이 주도한 근대한국학 전 문화와 시스템 만들기, 1900~1940년: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Korean Branch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1, 2021;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년대~1890년대」, 『역사민속학』 55, 2018; 이영호, 「랜디스(Eli Barr Landis)의 의료활동과 「한국학」 연구」, 『한국학연구』 4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담협가, 외교관, 선교사: 서구 한국학의 형성 주체와 문화적 토양』, 소명출판, 2022 등이 있다.
- 4) 광나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 한국학 개설 현황 검토 - 한국국제교류재단 'KF동계센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광수민,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한국학』 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김영, 「영국에서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동향」,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연재훈, 「영국 한국학의 발생과 발전 - 인물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윤은하, 「해외 한국학 제3세대를 바라보며」, 『역사와 담론』 67, 호서사학회, 2013; 정진현, 「유럽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3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등이 있다.

비롯한 다양한 교단의 선교사가 조선 내에서 활동하였고, 왕립아시아학회를 통해 1824년부터 아시아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해온 국가이다. 윌리엄 애스턴(William G. Aston, 1841~1911),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리처드 러트(Richard Rutt, 1925~2011), 게리 레드야드(Gari K. Ledyard, 1932~2021) 등 초기 한국학자들이 왕립아시아학회를 통해 한국학 연구에 공헌하였고, 1900년 설립된 한국지부와 한국지부의 학술지인 『회보(Transactions)』는 근대 서양 한국학 형성을 위한 연구가 교류·확산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⁶⁾

또한 1916년 동양연구대학(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으로 설립되어 영국의 아시아와 아프리카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맡아온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이 한국전쟁 휴전이 이뤄지는 해인 1953년부터 한국학 교수직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빌 스킬렌드(William E. Skillend, 1926~2010)를 채용하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진행한 국가이다.⁷⁾ 이후 영국 한국학은 꾸준히 발전·확장하면서 2023년에 이르면 영국 내 6개 대학이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21개의 교양어학원을 운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서유럽을 대표하는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 국가로 자리 잡았다.⁸⁾

이처럼 영국 한국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국학자의 공헌이 있었지만, 필자는 이들 가운데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 명예교수(James Huntley Grayson, 1944~현재)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임스 그레이슨은 1944년 미국에서 출생한 학자로, 인류학, 신학, 종교사를 전공하고 1971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에서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선교사로서 활동하였으며, 1987년부터 2009년 은퇴할 때까지 영국 셰필드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 동아시아학부(School of East Asian Studies)의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셰필드대학교가 런던 이외 지

5) 광수민,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221-222쪽.

6) 연재훈, 「영국 한국학의 발생과 발전 - 인물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265-266쪽.

7) 연재훈, 위의 논문, 264쪽.

8) 광낙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 한국학 개설 현황 검토」, 449-450쪽.

역에서의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종교사, 한국민속학, 설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5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학술 활동으로 영국 한국학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의 한국학 관련 연구,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한국종교사를 비롯한 한국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와 영국 내 한국학 교육기관의 육성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그레이슨 교수가 한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는 한국과의 인연 및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그레이슨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인 한국종교사 및 민속학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슨 교수가 활동한

2. 제임스 그레이슨과 한국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19세기 말 개항 이후에 한국에 찾아온 서양인 선교사가 찾아온 뒤에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종교 등의 전통 풍습에 주목하여 한국학 연구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레이슨 교수 역시 한국을 선교사로서 방문하면서 한국학과의 접점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레이슨 교수가 ‘아시아에 관심이 많던 인류학도’에서 ‘한국종교사를 연구하는 재영 한국학자’가 되기까지 세 개의 전환점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첫 번째는 1965년 한국 경상남도 창원군에서 “미국 웨이커 봉사 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가 진행한 봉사활동이고, 두 번째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인류학 석사를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 석사 학위 취득 이후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것이었다.⁹⁾

9) Chang-won Park, “An Interview with Professor James H. Grayson,” *Journal of Korean Religions* 1, no. 1, 2010, pp.190-191.

미국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던 그레이슨 교수는 인류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계획이 있었던 열성적인 학생이었고, 어릴 적부터 동아시아에 관해 관심이 있었기에 미국 웨이커 봉사 위원회의 동아시아 봉사활동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게 되었다. 1965년 당시 냉전이 한창이라 공산권 국가인 중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선택지인 일본과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개설한 현대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일본과 달리 여전히 전후 복구에 한창이면서 경제적으로 한참 낙후된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⁰⁾ 특히 봉사활동을 하게 된 어촌의 이장이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예절을 잘 지키고 행동에 주의하라”면서 옷차림을 강조하는 모습에 “인류학자를 꿈꾸던 사람”으로서 큰 흥미를 느낀 듯하다.¹¹⁾

1965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짧은 기간 봉사활동을 한 뒤, 그레이슨 교수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인류학 석사학위 과정을 밟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뉴욕 내 한인 교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콜럼비아 대학교의 인류학과의 학술적으로 굉장히 “마르크스주의”적이었고, 사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물론의 영향이 컸기에 종교를 “정신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취급하는 주변 환경이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본질적으로 고민하게 했다고 이야기하였다.¹²⁾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고민으로 미국

10) James H. Grayson, “From Workcamper to Missionary : a View of Korea from 1965 to 1987”, *Paper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vol. 14, 2012, pp.35-36.

11) Michael Finch, “An Interview with Professor James H. Grayson,” *Acta Koreana* 9, no. 2, 2006, pp.155-157.

12) *ibid.*, pp. 157-158. 1896년 콜럼비아 대학교의 인류학과의 설립될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는 마르크스주의를 인류학에 방법론으로서 접목하지는 않았지만, 좌파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학풍이 학과 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그레이슨 교수가 콜럼비아 대학교에 재학할 당시인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는 캠퍼스 내에서 베트남전에 항의하는 반전운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고, 1968년 4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암살당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지지하는 콜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시위 이후 콜럼비아 대학교 인류학과 학생들이 기존의 온건한 좌파적 입장에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혹은 “구조적 마르크스주의”로 대거 전향하며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Robert F. Murphy, “Memoir: Anthropology at Columbia: a Reminiscence,” *Dialectical Anthropology* 16, no. 1, 1991, p.79.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신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때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룸메이트가 한국에서 온 나원용(羅元容, 1932~2014) 서울 종교교회 감리교 목사였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그레이슨 교수에게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연합감리교회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게 되었다.¹³⁾

당시 한국 선교사 활동은 5년간 해야 했고,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길 요구했기에 선교사 활동에 앞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해야 했다. 그레이슨 교수는 연세대학교 어학당의 정규수업 이외에 한자를 배우고 신문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더욱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이 이후 한국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5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성장하는데, 일본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의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저명한 종교학자인 프랭크 웨일링(Frank Whaling, 1934~2022) 교수의 지도와 인류학과, 중국학과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종교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를 거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세계종교사, 세계민속종교, 세계종교 연구, 세계 종교 경전 강독 등을 강의하였다.¹⁴⁾

흥미로운 점은 그레이슨 교수는 이 시기 본인을 “한국학자”라고 보기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종교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종교인류학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한국 감리회가 내부 갈등으로 분열을 겪고, 이 문제로 미국 감리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그레이슨 교수 역시 한국에서 감리교회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수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신학 관련 강의를 하고자 하여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¹⁵⁾ 당시 미국에서 관련 초빙

13) Park, op. cit., p. 191.

14) Finch, op. cit., pp. 158-159.

15) 『조선일보』 1974년 12월 1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분열」; 1984년 2월 19일, 「개신교 무려 94개 교단 난립」. 이 문제로 인해 미국 선교본부가 대한감리회 총리원에 지급하던 보조비를 중단하는 사태가

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영국 셰필드대학교가 한국학 교수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지원하여, 1987년부터 셰필드대학교의 동아시아 학부에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레이슨 교수는 이 상황을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a missionary in Korea)”에서 “영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선교사(a missionary for Korea)”가 되었다고 평하였다.¹⁶⁾

선교사로서, 그리고 인류학자로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가 한국학자로 영국에서 자리 잡게 된 경력 때문에, 그레이슨 교수는 본인이 “뒷문을 통해 (through the back door)” 들어온, 한국을 전문적으로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학자가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하지만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온 뒤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학술적 관심과 이해가 깊어진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학술연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개항 이후 근대 한국학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였던 선교사 출신 초기 한국학자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3.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활동

1) 한국 개신교 역사 연구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는 현재까지 3권의 주요 저서와 13편의 북 챕터, 51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한 학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들 업적은 연구 관심 분야에 따라 크게 한국 내 개신교의 역사, 한국 종교사, 그리고 한국 민속 신화와 설화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국 내 개신교의 역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그레이슨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출간한 저서인 『초기 불교와 한국의 기독교(Early Buddhism and Christianity

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1975년 4월 15일, 「사분오열의 감리교단 정상화 공청회 “목사 파송제 개혁부터”」.

16) Finch, op. cit., p. 159.

in Korea)』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레이슨 교수는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체류하면서 아시아 여러 국가 가운데에서도 한국이 유독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빠르게 수용하고 한국 내 전파와 확산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레이슨 교수는 새로운 종교 정착(Emplantation, ‘넣다’, ‘특정한 상태로 만든다’는 뜻의 접두사 em-과 이식을 뜻하는 implantation의 결합어)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내 개신교 전파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계의 기존 학설이 이질적인 문화권 간의 종교 전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인데, 예를 들어 마이클 파이(Michael Pye)의 「종교의 이식(The Transplantation of Religions)」에서 제안한 종교 이식 모델은 새로운 종교가 전달되는 접촉(contact), 새로운 종교가 기존의 문화에 적응하는 모호함(ambiguity), 그리고 이식된 종교가 인정을 받는 회복(recoupment)의 세 단계를 거친다고 언급하였는데,¹⁷⁾ 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함을 지적하였다.¹⁸⁾ 또한 랄프 린튼(Ralph Linton)의 문화 확산 이론의 경우 문화 확산은 1) 새로운 문화 요소가 사회에 소개됨, 2) 이 요소에 대한 거부 혹은 수용, 3) 새로운 문화 요소와 수용 사회 간의 적응, 4) 기존 문화 요소의 제거 및 새로운 문화 요소의 대체라는 네 단계를 거치며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가치와 새로운 문화 요소 간의 ‘일치(congruity)’, 새로운 요소를 소개하는 자의 ‘사회적 위신(social prestige)’, 그리고 새로운 문화 요소의 ‘형식(form)’을 수용하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¹⁹⁾ 그레이슨 교수는 린튼의 문화 확산 이론 역시 종교 전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지만, “특정 사회에 한 종교가 이식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⁰⁾

17) E. M. Pye, "The Transplantation of Religions," *Numen* 16, no. 3, 1969, pp.234-39.

18) James H. Grayson, *Early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Leiden: Brill, 1985, p.2.

19) Ralph Linton, *The Tree of Culture*, Ney York: Knopf, 1956, pp.41-45.

20) Grayson, op. cit, p.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질적인 서구 종교였던 기독교가 유교가 지배적이었던 한국 사회에 전파되어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레이슨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로서 불교가 서역에서 전래되어 유교가 강세를 보였던 중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 정착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레이슨 교수는 후한의 몰락 이후 기존의 유교적 가치와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에 전래된 불교가 기존 유교 엘리트들의 강력한 거부와 저항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의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지배층들에게 폭넓게 수용될 수 있고 기존 유교 지도층에 대항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그레이슨 교수는 불교의 중국 및 동아시아 정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종교는 세 단계를 거쳐 정착하게 되는데, 우선 1) 접촉 및 해석(contact and explication)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서로 다른 두 가치 체계(이 경우에는 불교와 유교)간 충돌의 해결, 다른 하나는 이질적인 언어(인도어)로 된 불교 경전이 현지 언어(중국어)로 번역되어 해석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종교가 현지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2) 침투(penetration)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불교가 중국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중국적인 불교가 발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확산 단계인데, 이 시기에는 불교 미술이 융성하고, 중국 황제가 불교 철학을 국가 운영에 반영되며, 불교를 포교할 승려를 해외에 파견하는 등 불교가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중국 사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된다.²¹⁾ 그리고 이 세 단계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1) 가치 충돌 해결, 2) 지도층에 의한 수용 및 포용, 3) 언어적, 개념적 문제 해결, 4) 타 종교와의 성공적인 대립, 5) 새로운 교리를 수용하기 용이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이 어느 종교의 선교사든 이들의 활동을 성

21) *ibid.*, p.12.

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²²⁾

그레이슨 교수는 이와 같은 종교 정착 모델이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 역시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독교 가운데 천주교의 경우 1) 평신도들이 성경과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 2) 경직된 교회 체계에 대한 강조, 3) 조선 국체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에 연루되는 과정을 통해 종교 정착의 1단계인 접촉 및 해석 단계에서 현지 조선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확장에 한계를 보였음을 지적하였다.²³⁾ 반면 개신교의 경우에는 1) 천주교가 유일신에 대해 ‘천주(天主)’라는 명칭을 고집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하나님’이란 명칭을 수용하면서 기존 신앙 체제와의 충돌을 피한 점, 2) 개신교의 강한 윤리적 가치가 전통적 유교 가치관과의 공통점을 찾은 점, 3) 의료와 교육 등의 사회 활동을 통해 한국의 엘리트가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게 한 점, 4) 일제강점기에 개신교 지도자와 선교사가 한국의 민족주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새로운 권위를 얻은 점, 5) 선교사에 의한 이식이 아닌 한국인의 자발적인 교회 건설 노력 등을 통하여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분단을 거치면서도 성공적으로 한국 내에 정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²⁴⁾

그레이슨 교수는 『초기 불교와 한국의 기독교』 외에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내 기독교의 수용 및 발전 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 시야를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는 ‘추도 예배’를 다룬 “*Ch'udo Yebae: A Case Study in the Early Emplantation of Protestant Christianity in Korea*”이다. 이전에 제시한 종교 정착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고도로 유교화된 조선 사회가 어떻게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22) *ibid.*, pp.13-15.

23) *ibid.*, p.83; pp.98-99.

24) *ibid.*, pp.127-128.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유교의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인 ‘효’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제사’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신교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신자들에게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를 해결한 방안이 바로 ‘추도 예배’인데, 1895~1897년 사이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추도예배는 부모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못해 효를 다 하지 못한다는 전통적 유교 가치관과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거부감 없이 개신교 교리를 받아들일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1935년이 되면 부모님 기일 예배와 관련된 식순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신도들에게 안내가 될 정도로 추도 예배가 보편화되는데, 이는 개신교가 한국의 전통 유교사회에서 가치의 충돌을 극복하고 현지 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이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임을 이 연구가 증명하였다.²⁵⁾ 이외에도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한자명 羅約翰, 1842~1915)에 관한 연구,²⁶⁾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근본주의적 개신교 운동인 ‘시온산 제국’의 종교적 성격에 관한 연구²⁷⁾ 등 한국 내 개신교 수용 과정과 근현대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는 한국에 개신교가 유입된 뒤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가 크지만, 특히 한국에 온 선교사이자 한국학자인 서양인이 한국의 개신교 역사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서양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전도하는 천주교, 혹은 개신교가 한국에서 정착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는 연구를 이어왔다. 천주교의 경우 1874년 파리외방전교사들이 한국

25) James Huntley Grayson, “Ch’udo Yebae: A Case Study in the Early Emplantation of Protestant Christianity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8, no. 2, 2009.

26) 제임스 H. 그레이슨, 「John Ross and th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신학과세계』, 감리교신학대학교, 1984; James H. Grayson, “John Ross and Cultural Encounter: Translating Christianity in an East Asian Context,” *Studies in Church History* 53, 2017.

27) James H. Grayson, “The Empire of Mt. Sion: A Korean Millenarian Group Born in a Time of Crisis,” *Transformation* 28, no. 3, 2011.

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편찬한 『한국천주교회사』가 있고, 개신교 역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가 1908년 출간한 『한국 개신교 수용사』의 사례처럼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고 활동한 선교사 중심으로 한국 개신교의 성장 과정을 정리한 작업들이 있다. 그레이슨 교수의 저서 『초기 불교와 한국의 기독교』를 포함한 일련의 한국 개신교 역사 관련 연구는 선교사 출신 학자의 연구라는 연장선상에서 한국 개신교 확산과 성장의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을 심화하고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 종교사 연구

그레이슨 교수가 크게 관심을 가진 연구 분야 가운데 다른 하나는 한국 종교사였다. 그레이슨 교수가 에딘버러 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재학할 당시부터 종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관련된 논문들을 이미 다수 발표하였다. 1976년 발표한 「고대 한국의 왕실의 구조적 패턴(Some Structural Patterns of the Royal Families of Ancient Korea)」 논문은 고대 삼국의 초기 왕위 계승이 가야를 제외하면 형제 상속으로 이뤄졌고, 특히 신라의 경우 다른 성씨 간의 혼인을 통한 동맹으로 권력이 지탱되는 느슨한 체제임을 언급하며 한국 고대 왕국의 왕실 구성과 권력 관계를 논증하였다. 또한 같은 세대의 성씨가 서로를 “형”, “동생”으로 지칭하던 풍습을 지적하면서 이를 현대 한국 사회에서 타인을 형제, 자매처럼 부르는 행위와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²⁸⁾ 이듬해에 발표한 「한국 역사학에서의 임나일본부 문제(Mimana, A Problem in Korean Historiography)」 논문에서는 한국, 이론 사료와 양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여 임나일본부 주장이 갖고 있는 허구성, 그리고 임나일본부 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일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의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²⁹⁾

28) James H. Grayson, “Some Structural Patterns of the Royal Families of Ancient Korea,” *Korea Journal* 16, no. 6, 1976.

뒤이어 1989년에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저서인 『한국종교사(Korea: a Religious History)』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한국종교사』는 한국 내 종교의 발전 과정을 통사적으로 다루는 글로, 1995년 한국에서도 강돈구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하였다.³⁰⁾ 그레이슨 교수는 서론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의 문화사나 종교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무시되고 간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종교사를 정리하는 책을 출간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선불교가 일본보다 일찍 확립된 점, 사회 전체가 완전히 유교화된 유일한 국가인 점, 기독교가 200년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민족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성장한 나라라는 점을 들어 한국 종교의 독창성과 역동성을 강조하였다.³¹⁾

그레이슨 교수는 또한 서론에서 본인의 한국 종교사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우선 한국종교가 ‘객관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국 나름의 문화적인 배경을 갖춘 “종교 전통”으로 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 종교가 각 시대를 거치면서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성장과 발전을 해왔기에 각 시기의 문화사, 정치사와 대비시키며 이를 서술하였다. 한국 종교” 대신 “한국 종교전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한국에 수용된 종교가 당시 정치, 사회와 맺었던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 종교사”의 보편성과 독창성을 모두 보여주는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³²⁾

그리고 한국의 전통 종교인 무속이 한국사 전반에 걸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³⁾ 특히 무속이 현대 한국사회에도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가장

29) James H. Grayson, “Mimana, A Problem in Korean Historiography,” *Korea Journal* 17, no. 8, 1977.

30) James H. Grayson, *Korea: a Religious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제임스 헨틀리 그레이슨 저,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민족사, 1995.

31) 그레이슨, 『한국종교사』, 15-16쪽.

32) 방원일은 이를 “한국종교의 ‘한국다움’이라는 문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서술하려는 태도”를 통해 ‘한국종교’를 정의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방원일, 「두 외국인 학자의 한국종교 스케치」, 『종교문화연구』,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2, 333쪽.

33) 그레이슨, 『한국종교사』, 16-17쪽.

오래된 전통 종교임을 강조하며 무속을 고대종교의 위치에 두어 연대기식으로 기술하던 기존 학계의 전통과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여 무속과 관련된 내용을 맨 마지막 장인 17장에서 다루었다.³⁴⁾ 그레이슨 교수는 한국인이 겪는 모든 종교적 경험의 기반이 무속이고, 무속이 불교, 유교, 천주교와 같은 한국에 전래된 모든 종교의 역사적 전개에 영향을 끼쳤으며, 개신교 교회가 주관하는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의 신앙치료 의식 등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⁵⁾

그레이슨 교수의 『한국종교사』 책은 서양 학계에서 한국사를 통사적으로 다루는 제대로 된 개론서가 없던 상황에서 단순히 종교사에만 집중하지 않고 각 시대별 문화사와 정치사 역시 병렬하여 다룸으로써, 한국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개설서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 학계가 ‘삼국시대’ 이후를 ‘통일신라시대’로 정의하던 상황에서, 4장에서 통일신라 뿐만 아니라 발해의 정치사를 함께 다루면서 이 시기를 ‘남북국시대’의 개념으로 서술하여 한국사에 대한 주체적인 서양에 알린 점, 한국의 선불교 사례와 같이 한국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종교 전통을 해외에 소개한 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레이슨 교수의 『한국종교사』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한국 학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1963년 첫 출간된 뒤 재판을 반복해온 김득황의 『한국종교사』 이외에 마땅한 개설서가 없던 상황이었기에, 한국의 종교사를 통사적으로 다루면서 서양 학계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저서로 국내 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³⁶⁾

한국 종교사 전반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여러 서양인 선교사에 의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이질적인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서양인 선교사들 입장에서, 한국의 종교와 영적 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개항기 한국에 온 서양인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유교는 종교가 아닌 도덕 체계이며,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불교 역시 영향력

34) 김성래, 「일제시대 무속담론의 형성과 식민적 재현의 정치학」, 『한국무속학』 24, 한국무속학회, 2012, 8쪽.

35) 그레이슨, 위의 책, 259~260쪽.

36) 박맹수, 「그레이슨 교수의 <한국종교사>를 읽고」, 『종교연구』 11, 한국종교학회, 1995, 401-406쪽.

을 잃은, 일종의 ‘종교적 진공’ 상태로 파악하였다.³⁷⁾ 하지만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인 조지 존스(George Heber Jones, 1867~1919)가 1901년 한국인이 유교, 불교, 샤머니즘을 종교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래, 다니엘 기포드(Daniel L. Gifford, 1861~1900),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1863~1949)와 같은 학자들이 유교, 불교와 함께 도교, 혹은 무속이 혼재되어 있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헐버트의 경우 무속을 비롯한 민간신앙이 한국인의 종교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파악하였다.³⁸⁾ 그레이슨 교수의 『한국 종교사』는 헐버트가 정리한 무속에서 무당의 역할, 세계관, 의례와 같은 핵심적인 개념과 한국인의 종교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해석을 개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민간 신앙이 한국인의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개신교를 포함한 다른 외래 종교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양 학자가 해석해온 한국 민간신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의가 있다.

3) 한국의 신화와 전설 연구

그레이슨 교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연구분야는 한국의 전설, 설화이다. 그레이슨 교수는 2001년 총 177개의 설화와 민담을 담은 책인 『한국의 신화와 전설(Myths and Legends from Korea)』을 출간하였다. 서문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구전 설화를 통해 드러내는 생각과 신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힌 그레이슨 교수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헌에 남아있는 전설과 민담 총 177개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하였는데, 이 책 역시 한국인의 민담과 문화사에 관한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집 혹은 동아시아 사상과 문화에 대해 강의하는 데에 필요한 교과서, 혹은 보조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를 바라며 집필했음을

37) 김홍수,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종교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1~12쪽.

38) 위의 논문, 13~15쪽.

밝히고 있다.³⁹⁾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한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설화를 수집하여 정리하기보다는, 10세기 이전의 고대와 19세기 중반 이후의 근대 시기에 나타나는 설화를 비교하고 대조하여 두 시기 사이 각 설화가 유지하고 있는 연속성, 혹은 차이성 등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여진, 몽골, 만주, 거란과 퉁구스계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민족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설화 역시 함께 수집, 수록하여, 한국의 설화와 전설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자 하였다.⁴⁰⁾

이렇게 수집한 다양한 설화와 전설을 분석하기 위해 그레이슨 교수는 “극적 구조 분석(Dramatic Structure Analysis)” 방식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극적 구조 분석” 방식은 설화를 하나의 연극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인데, 주인공의 이름이나 복장, 배경, 시간대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이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특정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특정한 형식(type)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화와 전설 안에서 행위자가 표현되는 방식이나 배경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장면을 묘사할 때에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지, 주제와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전설과 설화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 이론이다. “The Myth of Tan'gun: A Dramatic Structural Analysis of a Korean Foundation Myth” 논문은 이러한 극적 구조 분석 방식을 통해 한민족의 대표적인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판본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뒤, 고구려 주몽의 건국 신화, 그리고 일본 진무천황의 건국 신화에 대한 주제 구조와 서술 구조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단군 신화가 주몽 신화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일본 진무천황 신화와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이 나올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논증하였다.⁴¹⁾

39) James H. Grayson, *Myths and legends from Korea: An annotated compendium of ancient and modern materials*, Routledge, 2012, p. xv.

40) *ibid.*, pp. 1-2.

41) James, H. Grayson, “The Myth of Tan'gun : A Dramatic Structural Analysis of a Korean Foundation Myth,” *Korea Journal* 37, no. 1, 1997, pp. 48-50.

그레이슨 교수는 극적 구조 분석 방식을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제주의 3개 성씨가 등장하는 건국 신화의 분석에도 대입함으로써, 3개 성씨의 조상이 동시에 등장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제주의 건국 신화와 의식이 동남아시아나 오세아니아의 의식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여 문화적 연관성과 기원 가능성을 주장하였다.⁴²⁾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와 주몽 신화 사이에서 드러나는 극명한 차이점들, 국가를 세우기 위해 도주하는 주몽과 다양한 문화를 다스리는 이들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국가를 세우는 단군의 경우를 비교하여 두 설화와 이를 창조한 세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주장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다.⁴³⁾ 또한 한국의 근대 민담 가운데 하나인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의 구조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민담의 기원을 밝혀내는 한편, 전통적으로 민담이 갖고 있는 기능인 1) 유희, 2) 문화의 가치 존중, 3) 청자에 대한 교육, 4) 문화 가치와의 동조 유지 이외에 사회 비판의 기능도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⁴⁴⁾

극적 구조 분석 방식은 한국 민담과 설화를 타 지역과 민족의 설화와 비교, 대조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해당 설화의 배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특히 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모델과 이론을 도입하여 신화, 설화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역사학적 논의를 이끌어 낸 점 또한 인류학, 종교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한 그레이슨 교수가 한국학 연구 과정에서 보여주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42) James H. Grayson, "Foundation Myths, Sacred Sites and Ritual," *Korea Journal* 38, no. 4, 1998, pp.329-330.

43) James H. Grayson, "Tan'gun and Chumong: The Politics of Korean Foundation Myths," *Folklore* 126, no. 3, 2015, pp.257-258.

44) James Huntley Grayson, "They first saw a mirror: a Korean folktale as a form of social criticism,"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6, no. 3, 2006, pp.261-277.

4. 셰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운영과 확장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업적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국학 교육 성과이다. 1987년 셰필드대학교의 동아시아학부에 한국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2009년 은퇴할 때까지, 셰필드대학교 동아시아학부는 영국에서 런던 이외에 있는 한국학 연구,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학 전문 연구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셰필드대학교의 동아시아학부는 1964년 비서구권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영국 사회와 교육계의 요구에 공감하면서 일본학센터(The Centre for Japanese Studies)로 처음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연구소가 아닌 학과로서 운영되었으며, 당시 사회과학부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인문학 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일본과 연계된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교육도 시작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⁴⁵⁾

1979년, 셰필드대학교 일본학센터에서 일본어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어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산학협동재단이 셰필드대학교에 한국어 강사 고용을 위한 한국학 연구 기금을 5년간 지원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셰필드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도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학으로 완전히 독립된 학위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여건상 어려웠고, 일본학을 전공하면서 작성해야 하는 10개의 졸업페이지 가운데 하나를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일본 문화에 대한 수업에서 한국 문화를 다루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⁴⁶⁾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셰필드대학교의 동아시아학부 내 한국학 교육과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는 연세대학교와 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하면서 교환학생을 파견하였고, 1990년에는 일본학센터와 부속 기관으로 딸려있던 한국학팀(Korean Studies Unit)을 통합하여 동아시아

45) Finch, op. cit., pp.159-160.

46) 『동아일보』 1979년 6월 19일, 「산학 협동 5년 실적과 내일의 과제들」.

학부(School of East Asian Studies)로 개편하고 한국학과 일본학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에 대한 졸업페이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 한국사에 대한 졸업페이지까지 총 3개의 한국학 관련 졸업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일본학 주전공 - 한국학 부전공” 학위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1992년이 되면서 세필드대학교의 학제가 졸업페이지 작성에서 학기제 운영으로 변경되면서, 비로소 동아시아학부는 한국학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강의 개설과 학위 논문 작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⁴⁷⁾ 여기에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교류재단의 지원을 통해 교수진을 보강하여 3명의 교수진과 2명의 파트 타임 강사를 고용하게 되고, 박사과 정생의 모집도 가능해지면서 한국학 프로그램 역시 더 이상 부전공이 아닌 주전공으로 제공되며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국인의 관심이 적고 주의를 끌기 쉽지 않았던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 늘 많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도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매년 10명 미만의 소수였기에 대학 측에서는 3명의 교수정원을 유지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의 수가 20-30명 수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음에도 대학은 교수정원을 늘리는 데에 주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레이슨 교수가 2009년 퇴임하며 한국경영학을 전공한 체리 주디스(Cherry Judith) 교수 1명만 남게 되어 학과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되자, 그레이슨 교수는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필드대학교 한국학 과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였다.⁴⁸⁾ 이에 호응하여 한국교류재단이 매 학기당 35명의 한국학 전공 학생을 지원하는 한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국학 정교수직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⁴⁹⁾

2010년대까지 세필드대학교 동아시아학부가 한국학 프로그램을 유지할

47) Finch, op. cit., pp. 161-162.

48) 『한겨레』 2009년 10월 11일, 「한국학 30년 공든 탑 무너지기 전에」; 『매일신문』 2009년 10월 17일, 「한국은 나의 운명」 영 세필드대 그레이슨 교수.

49) 『서울경제』 2009년 12월 15일, 「영 세필드대 한국학과 존속 위해 지원」.

수 있었던 데에는 그레이슨 교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우선 1987년 셰필드대학교에 부임한 뒤 한국에서의 선교 생활을 통해 구축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세대학교와의 학생 교류 협정을 맺고 한국교류재단, 산학협동재단, 대산재단 등 한국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런던에 위치한 SOAS가 인문학과 예술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셰필드대학교의 사회과학부에 속해있는 한국학 프로그램은 “1945년 이후의 동아시아 경제”, “현대 한국사업과 경영”, “한국학과 경영학”, “현대 한국 사회” 등 한국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의 과목을 운영하는 차별점을 들 수 있었다.⁵⁰⁾ 또한 셰필드대학교 동아시아학부는 한국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교수진을 확보하여 2010년대 초반까지 SOAS와 함께 한국학을 단독 주전공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로 자리잡았다.

또한 그레이슨 교수가 2009년의 폐과 위기를 막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에 성공하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영국 전역에서 한국학의 인기가 높아질 때 셰필드대학교 동아시아학부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양적 팽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류를 포함한 K-pop 가수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는 관객층도 늘어나는데다, 한국이 경제 성장 이후 국제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 역시 급증하였고, 한국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하는 대학들도 최근 몇 년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셰필드대학교 동아시아학부의 한국학 프로그램의 입학생 수는 일본학, 중국학 전공자에 비해 크게 밀리고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입학자 수가 급격히 늘어 매년 80~90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하면서 일본학과 중국학의 인기를 압도하고 있다. 셰필드대학교 역시 한국학 프로그램의 인기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인정하여 최근에는 한국학 전임 교수의 수를 6명으로 늘리고 2023년 11월에는 한국학 연구 중점 기관인 한국학연구소(The Centre for Korean Studies)를 개설하며 한국학

50) 이은자, 「영국 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06, 322~323쪽.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그레이슨 교수의 셰필드대학교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은 그의 한국학 연구만큼이나 영국 한국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영국에서 SOAS 이외의 대학들이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연구, 교육하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끌어내며 명맥을 유지하였고, 독창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한국학을 단독 주전공으로 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였다.

5. 결론

이상으로 재영학자인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및 교육 성과를 살펴 보았다. 학부 과정부터 한국학과 관련된 전공을 밟으며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는 연구자와 달리, 그레이슨 교수는 “아시아에 대해 공부하는 인류학자”라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 청년으로 시작하여 한국에서의 선교 생활을 통해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이해하고 싶다는 학술적 호기심이 동력이 되어 현재의 자리에 이르게 된 한국학자이다. 이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전형적이지 않은 한국학자”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고, 한국에서 한국인, 한국문화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할 기회가 더 많았기에 오히려 한국의 전통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부 시절부터 하나의 전공에 매몰되지 않고 인류학, 역사학, 종교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관심과 역량을 갖춘 점 역시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가 다른 한국학 연구와 차별되는 시선과 각도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한국학이 한국과 미국에 비해 발전 단계에 있어서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나 일반인, 그리고 연구자 지망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설서와 참고서

가 부족한데, 한국 종교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정치사도 다루고 있는 훌륭한 개설서인 『한국종교학』이나 한국 민속학과 역사학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될 내용을 담은 『한국의 신화와 전설』과 같은 책의 편찬을 통해 영어권에서 한국학의 저변을 넓힌 점, 그리고 이들 저서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의 개신교 수용 과정 등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 점 역시 긍정적인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업적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셰필드대학교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지금처럼 한국학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높아져서 세계 각지의 대학이 한국학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지금과 달리, 한국은 중국, 일본의 주변부라는 인식과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력과 외교력 때문에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영국 각지의 한국학 개설 대학들 역시 늘 입학생 수와 교수 정원 수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했고, 이는 셰필드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셰필드대학교 동아시아학부가 연구지원금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교원 수를 유지하면서 주전공으로 한국학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진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데에는 한국학 프로그램을 가장 오래 운영하고 관리한 그레이슨 교수의 공이 크다.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는 2009년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목 활동을 하면서 한국학 관련 연구 활동 역시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진 영국 내 한국학자들의 연구 기여를 통해 국내 학계와 교류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서울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탐험가, 외교관, 선교사: 서구 한국학의 형성 주체와 문화적 토양』, 소명출판, 2022.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 저, 강돈구 역, 『한국종교사』, 민족사, 1995.

Grayson, James H., *Early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Leiden: Brill, 1985.

_____, *Korea: a Religious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_____, *Myths and legends from Korea: An annotated compendium of ancient and modern materials*, Routledge, 2012.

Linton, Ralph, *The Tree of Culture*, Ney York: Knopf, 1956.

곽낙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 한국학 개설 현황 검토 - 한국국제교류재단 'KF통계센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곽수민,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한국학』 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김성례, 「일제시대 무속담론의 형성과 식민적 재현의 정치학」, 『한국무속학』 24, 한국무속학회, 2012.

김영, 「영국에서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연구동향」,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박맹수, 「그레이슨 교수의 <한국종교사>를 읽고」, 『종교연구』 11, 한국종교학회, 1995.

방원일, 「두 외국인 학자의 한국종교 스케치」, 『종교문화연구』,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2.

연재훈, 「영국 한국학의 발생과 발전 - 인물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육영수,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년대~1890년대」, 『역사민속학』 55, 2018.

_____, 「미국-영국 선교사와 외교관이 주도한 근대한국학 전문화와 시스템 만들기, 1900~1940년: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Korean Branch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61, 2021.

_____,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서양선교사들의 조선문화예술 담론만들기」, 『韓國史學史學報』 46, 한국사학사학회, 2022.

윤은하, 「해외 한국학 제3세대를 바라보며」, 『역사와 담론』 67, 호서사학회, 2013.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4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이유정, 「호머 헬버트의 한국 민속연구와 영역 설화집으로서의 THE KOREA REVIEW」, 『비교한국학』 29-2, 2021.

이영미, 「1900~1940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와 서양인들의 한국 연구」,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_____,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연구」, 『역사민속학』,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 _____, 「영문 잡지 『코리아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1892~1898)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 이영호, 「랜디스(Eli Barr Landis)의 의료활동과 ‘한국학’ 연구」, 『한국학연구』 4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 이은자, 「영국 대학에서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06.
- 제임스 H. 그레이슨, 『John Ross and th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신학과세계』, 감리교신학대학교, 1984.
- 정진현, 「유럽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3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 Finch, Michael, “An Interview with Professor James H. Grayson,” *Acta Koreana* 9, no. 2, 2006.
- Grayson, James H., “Some Structural Patterns of the Royal Families of Ancient Korea,” *Korea Journal* 16, no. 6, 1976.
- _____, “Mimana, A Problem in Korean Historiography,” *Korea Journal* 17, no. 8, 1977.
- _____, “The Myth of Tan’gun : A Dramatic Structural Analysis of a Korean Foundation Myth,” *Korea Journal* 37, no. 1, 1997.
- _____, “Foundation Myths, Sacred Sites and Ritual,” *Korea Journal* 38, no. 4, 1998.
- _____, “They first saw a mirror: a Korean folktale as a form of social criticism,”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6, no. 3, 2006.
- _____, “Ch’udo Yebae: A Case Study in the Early Emplantation of Protestant Christianity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8, no. 2, 2009.
- _____, “The Empire of Mt. Sion: A Korean Millenarian Group Born in a Time of Crisis,” *Transformation* 28, no. 3, 2011.
- _____, “From Workcamper to Missionary : a View of Korea from 1965 to 1987,” *Paper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vol. 14, 2012.
- _____, “Tan’gun and Chumong: The Politics of Korean Foundation Myths,” *Folklore* 126, no. 3, 2015.
- _____, “John Ross and Cultural Encounter: Translating Christianity in an East Asian Context,” *Studies in Church History* 53, 2017.
- Park, Chang-won, “An Interview with Professor James H. Grayson,” *Journal of Korean Religions* 1, no. 1, 2010.
- Pye, E. M., “The Transplantation of Religions,” *Numen* 16, no. 3, 1969.

The Significance of James Grayson's Research and Teaching in Korean Studies*

Kwon, Euysuk**

This paper examines the research and teaching achievements of Professor James Grayson, a Korean scholar, and evaluates their significance. Professor Grayson is a Korean studies scholar whose interest and affection for Korean people and culture was fuelled by his missionary experience in Korea and his academic curiosity to know and understand more about Korea. His interest and ability to conduct interdisciplinary research across fields as diverse as anthropology, history, and religious studies, as well as his various research and writing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religion and folklore, have provided a unique perspective and angle on Korean studies.

In particular, his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through the compilation of introductory texts such as *Korean Religion and Korean Myths and Legends*, and his more in-depth research on the process of Protestantisation in Korea based on these texts, should be recognised as positive contributions. Professor Grayson, as the longest-serving director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me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deserves much of the credit for establishing the University of Sheffield as a centre for research and teaching in Korean Studies with a compliant curriculu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6A3A02079082).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Wonkwang University

Key words : James Grayson, Britain-based Scholars, Overseas Korean Studies,
Korean Religious History, Anthropology of Religion